취·창업 언론 기사 자료

2018년 11월 27일

취·창업지원센터

2018. 11. 27(화)

언론사명	주 요 기 사 내 용	페이지
매일경제	○ 자소서 인사팀서 꼼꼼하게 다 봐요	1
	○ 5G시대 앞두고 인재 영입전 … 이통3社 취업문 활짝	2
	○ 유학없이 독일 아우디에 입사한 비결 철저히 준비해둔 작품 포트폴리오 덕이죠	3
	○ 청년 취업 두드림 채용박람회 개최	6
광주일보	○ 중기 예비창업자 대상 시제품제작터 지원 안내	4
	○ 광주지역인적자원위, 580여명 일자리 창출 성과	8
한국경제	○ 웰크론, 신입·경력사원 채용 내달 23일까지 온라인 접수	5
동아일보	○ 첫 달 국민연금 대신 내준다는데… 청년 절반 "형평성 고려해야" 반대	7

매일경제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A30면 종합

“자소서 인사팀서 꼼꼼하게 다 봐요”

아워홈 대졸신입 공채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는 인사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직무 역량을 쓸 때 어려워하는 지원자가 많은데 지금까지 본인이 노력했던 경험이나 사례 위주로 쓰면 될 뿐 반드시 같은 업종을 통해 얻은 경험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전국 800여 개 급식 점포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루 약 100만끼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 아워홈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급식을 주요 사업으로 한 종합식품업계는 아워홈 등 기존 사업자의 시장 장악력이 큰 데다 병원치료식, 레저시설 등 수요가 늘고 있어 취업준비생들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아워홈의 이번 공채는 다음달 1일까지 지원 서류를 받는다. △영업(식재, 식품, 푸드서비스) △기획(전략, 푸드서비스, 외식) △마케팅(식품) △IT기획운영 △경영지원(노무, 환경안전, 회계) △구매(MD) △인테리어(푸드서비스 인테리어) 부문이 채용 대상이다. 근무지가 직무별로 다른데, 해당 직무별로 명시된 근무지역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전체 채용 규모는 4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서류 접수는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를 포함한 4년제 학위 이상 기졸업자, 전 학년 평점 3.0 이상(4.5만점 기준) 이어야 가능하다.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중국어·베트남어·영어·일본어 등 외국어 능력 보유자는 우대한다.

지원 서류는 다음달 1일 자정까지 아워홈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메일이나 우편, 방문 접수는 하지 않는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실무면접, 임원면접, 건강검진순으로 진행된다.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워홈은 특히 서류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읽는다고 한다. 아워홈 인사팀 채용 담당자는 “홈페이지에도 게시된 인재상을 살펴보고 자기소개서 혹은 면접에 강조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아워홈의 인재상은 신뢰, 열린 생각, 열정이다.

인사 담당자는 “신뢰는 고객지향적 사고를, 열린 생각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열정은 자신의 일에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자기소개서를 읽다 보면 단순한 열정만으로 자기소개서 문항과는 달리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지원 동기 역시 취업준비생들이 쓰면서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에 아워홈에 대해 관심 있었던 부분이나 입사하기 위해 준비했던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2000년 문을 연 아워홈은 FS(푸드서비스)사업, 식재사업, 외식사업, 식품사업, 해외사업 등 다양한 분야를 갖춘 종합식품기업이다. 조성호 기자

매일경제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A30면 종합

5G시대 앞두고 인재 영입전 … 이통3社 취업문 활짝

SKT, 5G 전문가 수시 채용
우수협력사 17곳 채용박람회

KT, AI 경력직 100여명 공채
5G아카데미서 2000명 양성

LG U+, 산학장학생 모집
석·박사 인재 사내 멘토링

5G 시대를 맞아 통신 업계에서도 인력 모으기가 한창이다. 지난 상반기 KT 잡 페어를 방문한 취업준비생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제공=KT)

5G 시대가 어느덧 다음달 1일로 다가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갖게 된다. 5G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돼 일선에 서 있는 통신기업들 역시 5G 시대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는 형국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기존 공채 외에도 협력사 채용, 경력직 채용 등 다양한 통신 관련 취업 기회가 늘어나는 배경 뒤에 5G가 있다.

매일경제가 통신 관련 기업들에 문의한 결과, 각 기업 담당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적극적인 소통능력을 갖춘 인재라면 5G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으로 손색없다고 입을 모았다.

SK텔레콤은 오는 29~30일 서울 중구 SK 남산 그린빌딩 20층 'SK텔레콤 동반성장센터'에서 자사 우수 협력사를 위한 첫 채용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

SK텔레콤 우수 협력사 17곳이 참여하는 만큼 모집 분야도 전략기획·재무·소프트웨어 개발·빅데이터 분석 등 회사별로 다양하다.

29일에는 엘케이테크넷, 티벨, 엑스투, 미디어브레인, 픽스트리, 아이센트, 씨앤토트플러스, 엔텔스, 파인원커뮤니케이션즈, 와이드넷엔지니어링,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등 11곳이 부스를 열고, 다음 날에는 비디, 지앤에스기술, 에이스테크놀로지, 에스피테크놀러지, 에치에프알, 우일정보기술 등 6곳이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최소 50명 이상이 취업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5G 시대가 열리면 관련 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SK텔레콤 측은 협력사 채용 박람회 홈페이지(job-fair.co.kr)를 통해 지난 23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이미 200명 넘게 신청했고, 현장접수 인원까지 합치면 300명 이상의 취업준비생이 박람회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SK텔레콤은 이번 채용박람회에서 협력사와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체계적 직무교육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이 밖에 수시채용 형태로 전문성 있는 인재를 찾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존 공채가 직군·조직 기준의 장기적 육성 관점의 채용이라면, 수시채용은 기존 대비 훨씬 세분화한 개인 단위 직무 레벨의 채용"이라며 "5G,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직무 전문성을 중심으로 단기 육성, 즉시 실무 수행 관점의 채용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KT 역시 경력직 채용이 한창이다. 지난 9월 이미 4차 산업혁명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5년간 23조원을 투자하고, 대졸직 600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KT는 자사 채용 홈페이지(recruit.kt.com)를 통해 현재 AI 영상분석, AI 음성인식, 다국어 AI 등 11개 AI 분야와 사운드 지능형 기술 개발, 경로 탐색 서버 개발, AI 단말 소프트웨어 개발, IoT 플랫폼·서비스 개발 등 직무에서 ○명(한 자리)씩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다. 분야가 다양한 만큼 이번 채용 인원도 100명을 넘을 전망이다.

이번주 채용 게시판

기업	분야	마감	비고
현대무벡스	물류자동화(기계설계, SW설계 등), 관리, IT 등	11월 30일	신입사원
호반그룹	호반건설(관리, 해외, 기술), 스카이밸리(식음료, 고객서비스) 등 계열사별 상이	12월 2일	신입사원
귀뚜라미그룹	귀뚜라미(연구개발), 범양냉방(기술영업) 등	12월 3일	신입사원
대한전선	영업(해외영업, 국내영업), 시공(토목, 전기) 분야 등	12월 9일	신입사원
웰크론그룹	방산제품 기획·관리, MB생산·품질관리 등	12월 23일	신입사원

※ 자료=사람인

지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서류전형을 통과한 뒤에는 1차 면접·인성검사, 2차 면접, 채용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합격을 가리게 된다.

KT 관계자는 "미래 먹거리로 AI가 주목받아 관련 분야 인력에 대한 수요가 넘친다. 실무 능력에 더해 벽 없이 소통하는 능력과 고객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KT는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무상교육 시스템인 '4차산업아카데미' '5G아카데미' 등 교육과정을 신설해 연간 400명씩 5년간 20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LG유플러스는 5G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석·박사 산학장학생 모집과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석·박사 산학장학생은 우수인재 선확보를 위한 신입 채용제도로 산학 장학생 기간에 등록금과 논문 인쇄비, 휴대폰 단말기 및 통신요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입사 전 사내 전문가와의 멘토링을 통해 회사의 주요 사업·기술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산학 장학생 취업은 석·박사 학위 취득 예정자(2020년 이후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AI, 빅데이터, 5G 등 미래 산업 분야 연구개발(R&D) 인원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LG인적성검사, 실무면접 등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임원 면접(내년 2월 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2020년 이후 입사한다. 경력 채용 또한 핵심 신사업 강화를 위해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용익 기자

매일경제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A30면 종합

유학없이 독일 아우디에 입사한 비결 철저히 준비해둔 작품 포트폴리오 덕이죠

아우디 첫 여성 외관 디자이너 박슬아 씨

"독일 회사는 학력, 성별, 나이 등 소위 스펙이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대학 출신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무조건 포트폴리오만 보기 때문에 미리 착실히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아우디 역사상 최초 여성 외관 디자이너'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가 드물다. 특히 해외 유학 경험이 필수로 여겨지는 디자인 업계에서 단 한 번의 유학 없이 아우디 본사에 당당히 합격한 것 또한 매우 드문 일이다. 독일 아우디 본사에서 외관 디자이너로 6년째 일하고 있는 박슬아 씨 이야기다.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최근 열린 '디자인코리아 2018'에서 만난 박씨는 해외 취업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디자인코리아 프로그램 일환으로 해외 취업 세미나와 1대1 취업 상담을 진행했는데 강연자로 그가 나선 것이다.

그는 해외 취업의 노하우를 묻는 질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첫 번째 조건으로 꼽았다. 그는 "해외 취업은 리쿠르팅이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포트폴리오가 쌓일 때마다 미리 정리해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언제든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준비가 있어야 인턴십에 지원할 때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우디 입사 전 폭스바겐에서 인턴으로 일했는데, 당시 성과물이 아우디 입사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그는 "해외 취업에서 인턴십이 매우 중요하다"며 "독일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한 학기 동안 인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스바겐 인턴십 프로그램은 인턴에게도 개인의 작업물을 제출하게 해 다른 디자이너와 경쟁을 시킨다"며 "인턴에게는 동기 부여도 되고 실력 면에서 향상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 실제 그는 폭스바겐 인턴 시절 제출한 디자인이 선택돼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그가 "인턴십 자체가 해외 취업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말하는 이유다.

실제 이 같은 인턴십의 중요성을 반영해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코리아디자인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 인재들에게 인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 인턴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하는데 디자인 업무 특성상 인턴에서의 포트폴리오만으로 즉각 채용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일반적인 국내 기업에서 중시하는 스펙은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로지 '실력'만 보는 셈이다. 그는 "한국에서는 공모전이나 자격증 등 스펙을 쌓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독일 회사는 의외로 그런 것을 채용에서 중시하지 않는다"며 "포트폴리오만 좋으면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서 오든, 어떤 학교를 졸업했든 상관없이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우디에 입사 원서를 넣고 회사에서 이메일로 회신이 왔는데 '미스터(Mr) 박에게'라는 문구가 있었다"며 "입사 원서에 사진을 넣기 싫어서 일부러 안 넣었는데 외국인 입장에선 내가 당연히 남자인 줄 알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光州日報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015면 경제

중기·예비창업자 대상

'시제품제작터 지원'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제작터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접수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제품제작터 지원 사업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3차원프린터, 3차원스캐너, 머시닝센터와 NC선반과 같은 장비들을 구축하고 전문가들이 제품개발 초기 시제품 제작이 필요한 기업이나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전남에서는 지난해 66개 업체에게 116건을 지원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82개 업체 82건을 지원한 바 있다.

실제 지역 기업인 ㈜라이브맥은 수입에 의존했던 베일러 주요 부품들을 3차원스캐닝을 통해 형상데이터를 획득, 이를 이용해 제품의 설계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작업성능이 뛰어난 베일러 부품 국산화에 성공해 해외수출까지 진행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시제품제작터 이용은 중기부 광주전남청 제품성능기술과 전화(062-360-916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한국경제
2018/11/27 화요일
A17면 산업

웰크론, 신입·경력사원 채용
내달 23일까지 온라인 접수

웰크론그룹은 다음달 23일까지 2019년 웰크론그룹 신입사원 및 경력사원 공개 채용을 한다.

모집 부문은 △방산기획·관리 △MB 생산·품질관리 △건축 공사·공무 △플랜트 상세설계 △플랜트 기본설계 △플랜트 전기계장설계 △플랜트 생산관리 등이다. 건축 설계부문은 경력사원을 뽑는다. 선발된 인원은 내년 2월부터 공채 6기로 주요 계열사인 웰크론, 웰크론강원, 웰크론한텍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지원 서류는 웰크론그룹 채용홈페이지를 비롯한 사람인, 잡코리아 등 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서류 지원자격과 근무지는 지원 부문별로 다르지만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어학능력 우수자는 공통으로 우대한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매일경제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B02면 기획

'청년 취업 두드림' 채용박람회 개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한은행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취업 두드림(Do-Dream) 채용박람회'를 지난 13일 개최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구인을 희망하는 100개 우수 중소벤처기업과 청년취업 두드림 사업에 참여하는 43개 대학의 졸업(예정)자, 국방부 전역 예정 청년장병,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한국폴리텍대 재직자 등 총 2000여 명의 청년 구직자가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이날 채용박람회에서는 홈페이지(www.sbcdodreamjob.or.kr)를 통해 원하는 기업의 면접을 미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사전 매칭프로그램이 운영돼 청년 구직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東亞日報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A23면 종합

첫 달 국민연금 대신 내준다는데… 청년 절반 "형평성 고려해야" 반대

국민연금 대납, 청년에게 도움되나

만 18세 청년 보험료 대납 사업
경기-전남 내년부터 시행 논란
본보, 청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이래서 찬성" 48%

가입기간 늘어나 연금 많아져
청년 맞춤형 복지제도 환영

"이래서 반대" 52%

지역 따라 배제되는 청년 생겨
만 18세만 가능한 건 아쉬워

경기도가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지역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분을 대납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도도 내년부터 유사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동아일보가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함께 21~23일 청년 16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청년 국민연금제도 찬성은 783명(47.9%), 반대는 853명(52.1%)으로 근소하게 반대 의견이 많았다.

찬성 측은 "가입 기간이 늘어나 연금 수령액이 많아질 것이다" "사회 초년생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청년은 "(만 18세를 넘어) 나는 수혜 대상이 아니지만 그동안 저조했던 청년복지가 확대되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측은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지역에 따라 배제되는 청년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또 만 18세만 대상이 된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청년도 많았다. 청년의 자립 능력을 간과하고 오히려 퇴보시킨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제도를 이해하려면 국민연금 '추납제도'부터 알아야 한다.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내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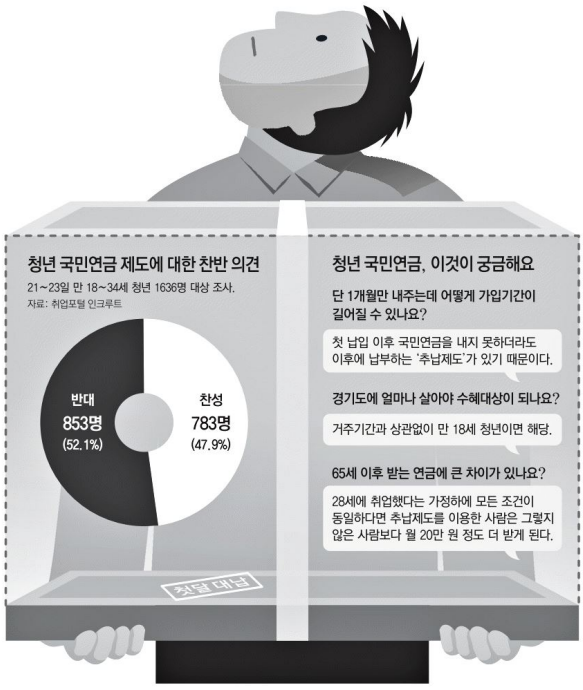
지자체가 만 18세인 청년의 첫 달 국민연금을 내준 뒤 해당 청년이 취업 이후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추납하면 국민연금을 18세부터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국민연금을 18세에 가입한 것과 28세에 가입한 것엔 큰 차이가 있다.

경기도 출신 청년 A와 서울 출신 청년 B를 비교해보자. 두 사람 모두 28세에 똑같은 직장에 들어가 월급 300만 원을 받고 30년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만 65세 이후 A의 연금은 매달 107만2000원, B의 연금은 80만8000원으로 월 26만4000원 차이가 난다. 물론 이는 A가 18세 이후 10년간 내지 못한 보험료를 추납했을 경우다. 추납 보험료는 현 소득을 기준으로 9%를 내야 한다. A의 추납 보험료는 월 27만 원에 120개월을 곱해 3240만 원이다. 이는 60세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B와 같이 은퇴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길어진다.

경기도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만 18세 당시 경기도에 거주하면 무조건 월 최소 보험료 9만 원을 대납해준다.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한 만큼 추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매년 (경기도 18세 청년) 16만 명씩 혜택을 볼 경우 국민연금 재정이 최대 50조 원까지 추가로 소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50조 원은 청년 국민연금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100세까지 살면서 35년간 꾸준히 연금을 수령한다는 것을 전제로 추정한 금액으로 적절치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야당의 우려에도 청년 복지정책이 마땅히 없는 현실에서 경기도의 실험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윤종 zozo@donga.com·김수연 기자



光州日報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015면 경제

광주지역인적자원위, 580여명 일자리 창출 성과

청년JOB희망팩토리 등 추진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광주인자위)의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육성의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인자위에 따르면 인자위는 올해 '지역 산업을 선도할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과 일학습병행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등을 추진, 58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이뤘다는 것이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1000여개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372명에 대해 채용예정자 양성훈련을 진행하고 3073명의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추진했다.

특히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으로 광주형일자리 확산사업, 청년JOB희망팩토리 등 7개 분야에서 18개 사업을 추진, 580명의 고용 창출 효과로 이어졌다는 게 광주인자위 설명이다.

광주인자위는 더 나아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수기공모전을 실시, 우수사례를 유관기관 및 훈련 담당자와 공유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력 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지역 산업·기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광주인자위 관계자는 "내년에는 '지역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목표로 인력양성훈련과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지정을 받아 운영되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중이며 지역기업 및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인력양성계획을 수립, 다양한 맞춤형 인재 양성교육을 추진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